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 타당화 연구(I)*

A validation study for the Infant/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I)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현온강
전임강사 이완정

Dep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Professor : Hyun, On Kang

Full-time Lecturer : Lee, Wanjeong

〈목 차〉

- | | |
|------------------|---------------|
| I.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validate the Infant/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ITERS). The rating scale was translated and adjusted appropriately by two researchers majoring child studies. An item-by-item comparison of the ITERS with criteria of NAEYC was conducted as the measure of content validity. 88% of the items of the ITERS was covered on the NAEYC criteria. Criterion validity was assessed by comparing ITERS scores and the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scores. The total correlation of two scores was .87. The sample for the interrater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cy studies included 30 infant/toddler classes in 30 day care center in Incheon city. Two observers independently rated each class on the ITERS during a single visit. The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for interrater reliability on the overall scale was .74. For the measure of internal consistency, the Cronbach's Alpha score on the overall scale was .93. The rating results show that national/public child care centers have better quality in Adult Needs and Learning Activities subscales than private child care centers have.

*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보육시설에서 보육(educare)를 받고 있는 아동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0세부터 생후 2세 반 정도까지의 영아(infants)나 걸음마기 아동(toddlers)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율도 함께 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영아보육과 관련된 가장 최근 자료인 '미국 아동건강 및 인간발달 국립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의 자료(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에 의하면 미국의 보육시설에서는 3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 시설에 있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중 약 50%의 아동이 생후 3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0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의 수가 1990년 현재 총 2백 17여만 명인데, 이 중 3-5세 아동이 40만 3천여 명인데 비해 0-2세 아동의 수가 28만 6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이렇게 영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아기 보육 경험이 이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논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두뇌발달의 60% 이상이 생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고(Bornstein & Lamb, 1992), 만 2세까지의 발달이 전 생애발달의 초석이 된다(조복희 등, 1995; 유안진, 1996)는 주장들은 모두 영아기 발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아기에는 더욱 양질의 보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영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Belsky, 1997)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영아기나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 양육자의 교육 및 훈련, 양육자와 아동의 비율, 집단의 크기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 지표 뿐만 아니라, 양육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이나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같은 과정적인 지표도 강조되어야 하며, 이 두 지표의 전반적인 측

면이 모두 적절히 안배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인 환경지표는 기초적인 요구 사항이고, 여기에 더하여 양육자와 아동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들이 제기되고 있다(Goelman & Pence, 1987; Phillips & Howes, 1987; Howes & Whitebook, 1992).

영아기 및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보육환경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관점을 기반으로 한 보육환경의 기준과 차별화되어 영아기 발달단계에 맞는 기준에 의해 준비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아동 교육 및 보육 환경 평가 척도 중에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평가도구 중 영아보육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국내에서 표준화연구가 시행된 것으로는 Abbott-Shimm과 Sibley(1987)에 의해 개발된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PECP)'를 들 수 있는데, 강숙현(1994)에 의해 국내에서 표준화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측정도구가 영아용, 유아용, 아동용으로 분리되어 있다. 영아 보육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평정도구는 Harms와 Clifford(1992)의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Infants/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ITERS)'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 Harms와 Clifford(1992)의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두 편의 연구 중 첫 번째 연구이다. 생후 0세부터 30개월까지의 영아기 및 걸음마기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평정하기 위한 이 도구는 7개 하위영역에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척도'를 번안하여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 이 도구로 인천광역시 30개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반을 관찰,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첫째, 본 평정척도의 내용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를 살펴보고 둘째, 평정척도의 내적 합

치도와 평정자간 신뢰도를 점검하며, 마지막으로 영아보육시설의 평가 결과를 보육시설 유형별로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 환경의 질 (quality)

유아기 보육 경험이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연구경향을 정리한 논문에서 Clarke-Stewart(1994)는 우수한 질의 보육이라면 보육 경험이 아동의 제반 영역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양질의 보육경험은 크게, 잘 구성된 물리적 환경, 아동에게 반응적이고 잘 훈련을 받은 양육자, 균형 잡힌 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낮은 교사대 아동 비율과 집단의 크기의 적절함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영아기 보육 경험이 이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보육 경험이 애착형성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부모 자녀간의 건강한 애착 형성이 영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80년대 이후 영아기 보육경험이 어머니와 자녀간의 애착형성에 저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진행되어 왔는데(Belsky, 1990, 1992; Clarke-Stewart, 1990, 1992, 1994a, 1994b; Roggman 외, 1995), Belsky 진영의 연구들(1990, 1992, 1997)은 영아기 보육경험이 모-자녀간의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쪽이고, 반면에 Clarke-Stewart 쪽(1990, 1992, 1994)은 애착을 측정하는 낯선 상황 실험이 보육시설의 영아에게 사용하기에는 타당도가 떨어지므로 실제 상황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Roggman 등(1995)은 과학적인 실험설계에 의한 연구에서도 영아기 보육경험이 모-자녀간의 부정적인 애착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아기 보육경험과 모-자녀간의 애착형성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영아기 보육경험과 애착형성의 관계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집적된 연구결과는 아동 초기 보육에 대한 '미국 아동건강 및 인간발달 국립 연구소(NICHHD)'의 것이라 할 수 있다(Booth 외, 1997). 전국적인 표집에 의해 얻은 1,300명이 넘는 영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모-자녀간의 애착형성이나 아동의 문제행동, 적응 등의 발달을 설명해주는 주요 배경변인은 가족 변수나 어머니의 반응적인 태도 등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5%정도인데 비해, 영아기 보육경험의 시간이나 질이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변량은 .5 - 1%정도라고 나타났다. 하지만 영아 및 걸음마기 아동이 생후 2, 3년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보육시설의 질이 우수할수록 아동의 애착형성이나 문제행동, 적응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증명되었으므로, 보육 시설의 질은 가족변수와 더불어 아동발달에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고 강조되고 있다(Belsky, 1997).

2. 보육 환경 평가 척도의 종류와 구성

보육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먼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유아교육기관 평가준거(한국교육개발원, 1987), 한국 유아교육시설 기관의 표준 평가척도(이영석, 1990), 유치원 교육 평가척도(국립교육평가원, 1994),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유아교육프로그램 평가척도(이은혜·이기숙, 1996)등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87)에서 개발한 것은 구체적인 평가준거라기 보다는 6개 하위 영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로써 평가활동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단계의 시도라 할 수 있다(강숙현, 1988). 국립교육평가원(1994)의 평가척도는 5개 하위영역에 60개 항목의 구체적인 문항을 갖고 있는데,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전반적인 보육환경을 평가하는데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감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에서 개발한 평가기준은 4개 하위영역에 9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보조도구도 1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척도 역시 영아

나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평가체제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외국의 보육환경 평가 도구로는 먼저 미국 NAEYC의 '우수한 초기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준거(Criteria for High Quality Early Childhood Programs)'를 들 수 있는데, 0세부터 8세까지의 발달에 적합한 아동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영아용 기준도 제시하고 있으나 영아나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환경을 따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Harms와 Clifford의 일련의 도구들이 있는데, 첫째로 '유아교육 환경 평정 척도(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ECERS)'는 7개 하위 영역에 3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재택(1983)에 의해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둘째로 '가정탁아 평정척도(Family Day Care Rating Scale: FDCRS)'는 5명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제공되는 탁아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으며, 6개 하위영역에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선영(1992)의 연구에서 번역되어 사용된 바 있다. 셋째로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척도(Infants/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ITERS)'는 0 - 30개월까지의 영아 및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역시 7개 하위영역에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외에 Abbott-Shimm과 Sibley(1987)에 의해 개발된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PECP)'는 운영관리편에 145문항,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프로그램편에 각각 129, 147, 103문항이 구성되어 있는 도구이며,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축약본도 있다. 국내에서는 강숙현(1994)에 의해 표준화연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호주 NCAC(1993)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준체제(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가 있는데, 이는 4개 하위영역에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 보육 및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정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구도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유아기 아동의 환경 평가도구로 적합하고 영아기나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평정도구는 많이 개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척도의 번역 및 수정

한국판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Infants/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를 제작하기 위해 1990년도 판을 근거로 척도 사용법 안내 및 척도의 각 문항과 이에 달린 지침(notes)을 번역하였다. 척도는 7개 하위 영역에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평가하며, 누적형 점수를 얻게 되어 있다. 즉 각 문항의 1(부적절), 3(최소), 5(중음), 7점(우수) 밑에는 총 10여 개의 단문이 배열되어 있는데, 1점이나 3점 밑의 단문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5점이나 7점 밑의 단문을 모두 충족시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단문의 수는 35개 문항에서 총 399개로 이루어져 있다.

번역된 단문들은 아동학 교수 2인에 의해 세밀히 검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일차 수정되었고, 평가 사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나 예비 관찰 평가를 통해 일부 단문에 대한 재수정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단문은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으나, 삭제되거나 수정된 단문이 몇 개 있었다. 가령 모든 영아가 각자의 침대를 갖고 있음, 동일 침구는 세탁하지 않는 한 다른 아동에게 사용하지 않음, 아동마다 개인용 수건을 따로 사용함, 개인용 빗으로 머리를 빗겨 줌 등의 단문이 있는데, 예비 관찰평가 결과 우리 보육 현황에서는 이들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했으므로 이럴 경우 보육시설이 해당 문항에서 모두 1점을 받게 되어 평가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단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

하지만 보육자들이 필요할 때 마다 손을 씻는가 등은 여러 문항에서 기본 조건으로 묻고 있는데, 우리 보육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조건이라 사료되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2. 평정자 훈련 및 예비 관찰 평가

평정자는 아동학 교수 2인과 아동학 전공 석사학위 위 소유자 1명, 그리고 아동학 석사과정 학생 1명으로 모두 4명이었다. 평정자 훈련은 1997년 8월 10일에서 14일까지 실시되었다. 먼저 첫 단계에서는 평정자들이 함께 모여 번역된 척도의 모든 단문을 함께 읽으며 불확실한 의미를 명료화시켰다. 둘째 단계에서는 인천시내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의로 6군데 선정하여 교수 2인의 쌍, 교수 1인과 대학원 학생 1인의 두 쌍의 세 조가 각각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2곳에 관찰 평가를 다녀왔다. 관찰 평가를 다녀 올 때마다 함께 갔던 2명의 평정자가 합의하여 새로운 점수를 도출하는 훈련을 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평가점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셋째 단계에서는 다시 모든 평정자들이 함께 모여 6군데 어린이집의 관찰 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시의 문제점을 함께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3. 연구대상 표집

관찰 평가대상이 될 어린이집은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모두 30개소를 유의표집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 전역의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얻은 후 8개 구별로 일정수의 어린이집을 골고루 표집하려고 하였다. 즉 8개 구의 어린이집마다 전화를 걸어 30개월 미만의 영아반이 1학급이상 운영되고 있는지와 그렇다면 연구진이 이 학급을 2시간 이상 관찰해도 되는지를 물어서, 조건이 충족되고 관찰을 허락한 어린이집을 구별로 일정수 충족시켜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30개소를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1개소, 남구 9개소, 남동구 3개소, 계

양구 4개소, 부평 6개소, 중구 2개소, 동구 4개소, 서구 1개소이었으며, 연구구에서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찾기가 쉽지 않아 환경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운영형태별로는 국공립이 10개소, 민간이 20개소였는데, 민간 어린이집 20개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재단에서 보조를 받는 곳이 5개소, 그리고 공동보육으로 운영되는 곳이 1개소 포함되어 있었다.

4. 환경 평가 실시

어린이집 영아반을 대상으로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가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평가는 1997년 8월 18일부터 10월 24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보육 환경 평가를 위해 아동학 교수 1인과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대학원생 1명의 2인으로 이루어진 각 관찰조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아반에 들어가 2시간 이상 교실 환경 및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으며, 그외 교실 밖의 환경이나 어린이집 현황은 영아반 관찰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필요한 만큼 살펴 보았다. 영아반이 2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이 1세 이상인 영아가 있는 반을 관찰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찰만으로 평가할수 없는 문항이나 질문사항은 관찰 도중 혹은 전후를 이용하여 원장이나 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물어 보았다.

2명의 관찰조는 각자 준비한 평가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였으며, 관찰이 끝난 후에 각자 점수 기록표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명이 함께 모여 추후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2인이 동의하여 얻은 점수로 새로운 점수 기록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2인의 점수가 동일한 문항은 그 점수를 그대로 주고, 2인의 점수가 1점 차이가 나는 문항은 그 중간점수를 주도록 하였으며, 2점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에 대해서는 2인이 합의하여 얻은 새로운 점수를 기록하도록 하여 이 기록표를 해당 어린이집의 최종 평가점수로 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타당도와 신뢰도 및

보육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등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내용 타당도는 NAEYC의 인준 기준 및 과정 (Accreditation Criteria & Procedures) 척도와 본 척도의 문항을 단문별로 비교, 대조하여 어느 정도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알아보았다. 공인 타당도는 평가기관 30개소 중 15개소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PECP) 영아편으로 이중 평가를 실시하여 이 결과와 2명의 평정자가 합의한 최종 평가 점수간의 적률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신뢰도는 내적합치도와 관찰자간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내적합치도는 2명의 평정자가 합의한 최종 평가에 대해 7개 하위영역별로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를 계산하였고, 관찰자간 신뢰도는 2명의 평정자가 각각 평정한 점수에 대해 7개 하위영역별로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계수(Spearman's correlation)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환경 평가 점수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2명의 평정자가 합의한 최종 평가 점

수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육시설 유형을 국공립, 지방자치단체나 재단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민간, 보조가 없는 민간 어린이집의 3종류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7개 하위영역에서 평가 점수가 다른지를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추후검증으로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평정 척도의 내용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ITERS)의 내용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자 2인이 본 평정 척도의 모든 문항을 NAEYC에서 발간된 인준 기준 및 과정(Accreditation Criteria & Procedures)의 각 문항과 비교, 대조해 보았다. NAEYC의 인준 기준은 보육시설에서 자체 점검용으로 사용하여 보육 환경의 질을 충분히 제고시킨 후 미국유아교육 협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도록 제작된 도구이다. 이

〈표 1〉 NAEYC의 인준 기준과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비교

척도의 종류	일치비율
1. NAEYC의 인준 기준의 내용이 영아 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내용에서 다 루어진 비율	75.3%
2. 영아/ 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내용이 NAEYC의 인준 기준의 내용에서 다 루어진 비율	88.6%

〈표 2〉 영아/ 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하위영역점수와 APECP점수간의 상관

영아/ 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하위영역(문항수)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아동을 위한 가구의 설비 및 배치(5)	.64*
개별 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9)	.71**
듣고 말하기(2)	.06
학습활동(8)	.66**
상호작용(3)	.28
프로그램의 구조(4)	.71**
성인의 요구(4)	.67**
전체 문항(35)	.87***

* $p < .05$, ** $p < .01$, *** $p < .001$

인준 기준은 10개 하위영역 별로 모두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다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의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EYC 인준 기준의 모든 단문을 기본 분석 단위로 하되, 한 단문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을 때는 이들 각각을 한 단위로 삼았다. 그리고 각 분석 단위가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399개 단문과 내용이 일치하는 정도를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내용 중 88.6%가 NAEYC의 인준 기준의 내용과 일치하여 높은 일치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얻기 위해서 조사대상 어린이집 30개소 중 15개소에 대해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PECP) 중 운영 관리편과 영아기 프로그램편을 가지고 병행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는데,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전체 평균과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 척도 전체 점수와의 상관은 .87로 높은 편이었다.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하위 영역 중 듣고 말하기 및 상호작용 부분과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의 전체 평균치간의 상관은 매우 낮았는데, 이는 이들 하위영역이 각각 2문항과 3문항으로 이루어져 문항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문항의 내적 합치도 및 평정자간 신뢰도

<표 3>에서 보면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7개 하위 영역 평균 점수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23부터 .86까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듣고 말하기 하위 영역의 경우 언어의 일상적 사용 및 책과 그림에 대한 문항이 있었는데, 해당 문항이 2문항 뿐이어서 내적 합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보는 하위 영역의 경우, 전체 문항수는 4문항이었으나 예외 아동을 위한 규정에 관한 문항과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간의 협동에 대한 문항이 종종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실제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2문항 뿐이어서 내적 합치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 하위영역의 내적합치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표 4>에서는 7개 하위영역별로 두 평정자간의 일치도를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계수로 알아보았다. 각 하위영역별로 두 평정자간의 일치도는 .58에서 .91까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상호작용에 관한 하위영역의 경우 평정자간의 일치도가 .36으로 아주 낮았는데, 이 하위영역은 또래간의 상호작용, 양육자와 아동의 상호작용 및 훈육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은 평정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요구되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하여 학습활동이나 개별 아동을 위

<표 3> 영아/ 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7개 하위영역에 대한 내적합치도

영아/ 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하위영역(문항수)	Cronbach α
아동을 위한 가구의 설비 및 배치(5)	.71
개별 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9)	.74
듣고 말하기(2)	.23
학습활동(8)	.86
상호작용(3)	.86
프로그램의 구조(4)	.36
성인의 요구(4)	.62
전체 문항(35)	.93

한 규칙적인 양육활동에 관한 하위영역은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한 설비나 교구 및 활동 내용에 관한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평정자간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은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구비되어 있어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평균 점수가 2.5점 이하인 문항으로는, 가상놀이, 식사/간식, 기저귀갈기/화장실 가기, 안전정

〈표 4〉 두 평정자의 평정 결과간의 순위상관계수

영아/ 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하위영역(문항수)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
아동을 위한 가구의 설비 및 배치(5)	.67***
개별 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9)	.85***
듣고 말하기(2)	.58**
학습활동(8)	.91***
상호작용(3)	.36
프로그램의 구조(4)	.70***
성인의 요구(4)	.77***
전체 문항(35)	.74***

** p < .01, *** p < .001

3. 환경 평정 문항별 점수 경향 및 보육시설 유형별 평정 결과의 비교

영아반이 있는 3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을 평정한 결과, 각 문항의 평균 점수는 7점 척도 중 1.58점에서 5.77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 〈표 5〉에는 평정 척도의 35개 개별 문항에 대한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 중, 그 문항의 점수가 4.5점 이상인 것과 2.5점 이하인 것만 제시하였다.

평균 점수가 4.5점 이상인 문항을 살펴보면, 낮잠,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 또래간의 상호작용, 성인 모임 장소, 학습활동을 위한 가구설비 등이다.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낮잠시간을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낮잠의 개별화를 시행하여 낮잠을 자고 싶어하지 않거나 따로 원하는 아동의 요구에 잘 반응해 주었다.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에 관한 문항의 경우, 현실적으로 2시간여의 관찰 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한 해당 직원들에게 직접 묻기도 어려운 문항이어서 전반적으로 편향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외 성인 모임 장소나 학습 활동을 위한 가구 설비등

책, 보건 관리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중 가장 놀이에 관한 문항은 대부분의 영아반에는 다양한 가상놀이 도구를 비치하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 정책에 관한 문항은 안전을 위한 절차나 비상시 취할 절차들이 쓰여 있는가의 여부가 기본적인 조건으로 점검되는데, 조사대상 어린이집들 중 이것을 충족시킨 시설은 오직 1군데 뿐이었다. 그외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양육자가 식사/간식 및 기저귀/화장실 문제를 다루기 전이나 후에 손을 씻는가의 여부가 기본 조건으로 점검되는데, 조사대상 어린이집 양육자의 다수가 이를 잘 지키지 않아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에서는 보육시설의 유형을 국공립과 보조를 받는 민간 및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평정 척도의 7개 하위영역별 점수분포를 알아 보았다. 먼저 하위영역별 전체 평균값들(음영으로 어둡게 표시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평균 3.5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개별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의 전체 평균 점수는 2.83점으로 최소수준을 나타내는 3점에 못미치고 있었다. 또한 학습활동의 하위영역 전체 평균 점수도 3.32

점으로 최소수준을 약간 상회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어린이집 영아반의 양육자 대 아동 비율이 높아, 양육자가 개별 아동을 충분히 돌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발달에 적합한 학습활동 도구 및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연령에 적합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을 제공하면 이들의 사기가 곧 전체 보육 환경의 질 상승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공립 시설의 경우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학습활동 도구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이들에게 적용시킬 프로그램도 민간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학습활동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향은 전체 보육환경의 질이 양육자의 복지수준과 학습

〈표 5〉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문항별 점수 경향

환경 평정 척도의 문항내용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8. 낮잠	5.77(1.03)	(3.00 7.00)	30
30.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	5.62(.72)	(4.00 7.00)	21*
25. 또래간의 상호작용	4.80(1.00)	(3.00 6.50)	30
34. 성인 모임 장소	4.70(2.05)	(1.00 7.00)	30
2. 학습활동을 위한 가구 설비의 사용	4.55(1.91)	(1.00 7.00)	30
-- 생 략 --		-- 생 략 --	
22. 가장놀이	2.37(1.69)	(1.00 7.00)	30
7. 식사/ 간식	1.72(1.48)	(1.00 6.00)	30
9. 기저귀갈기/ 화장실 가기	1.68(1.46)	(1.00 6.00)	30
14. 안전정책	1.63(1.51)	(1.00 7.00)	30
11. 보건관리	1.58(1.38)	(1.00 5.50)	30
전체 문항 (35개)	3.53(.83)	(2.50 5.94)	30

* 영아반의 담당 보육자가 한 명 뿐인 경우,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에 대해 관찰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문항은 채점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7개 하위 영역별로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점수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보육시설 유형별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하위 영역은 학습활동과 성인의 요구에 관한 영역이었다. 두 영역 모두, 국공립시설의 점수가 민간 시설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F값: 학습활동 = 7.72, $p < .01$, 성인의 요구 = 6.49, $p < .01$), 이 두 하위영역의 점수차이로 인해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도 국공립시설이 민간 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값 = 6.01, $p < .01$).

이는 결국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잘 충족시켜 주고, 교사 교육이나 훈련 서비스

활동을 위한 발달에 적합한 교구와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V. 요약 및 논의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ITERS)의 타당화를 위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정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NAEYC의 인준 기준과의 내용 일치 정도로 알아보았을 때, 본 평정 척도의 88.6%가 NAEYC의 인준기준과 일치되었다.

〈표 6〉 보육시설 유형별 하위영역의 점수 비교

하위 영역의 내용	시설 유형	어린이집 수	평균(표준편차)scheffe	F값
아동을 위한 가구의 설비 및 배치(5)	국공립	10	4.28(1.20)	2.93
	민간 보조	6	3.40(.87)	
	민간	14	4.21(.69)	
	전체	30	3.86(1.03)	
개별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9)	국공립	10	3.20(.69)	1.84
	민간 보조	6	2.82(.98)	
	민간	14	2.58(.76)	
	전체	30	2.83(.80)	
듣고 말하기(2)	국공립	10	4.23(1.58)	3.15
	민간 보조	6	3.83(.79)	
	민간	14	3.07(.85)	
	전체	30	3.61(1.22)	
학습활동(8)	국공립	10	4.29(1.11) a	7.72**
	민간 보조	6	3.23(.82) ab	
	민간	14	2.66(.98) b	
	전체	30	3.32(1.21)	
상화작용(3)	국공립	10	5.00(.79)	2.58
	민간 보조	6	4.14(1.14)	
	민간	14	4.35(.72)	
	전체	30	4.52(.88)	
프로그램의 구조(4)	국공립	10	4.68(1.07)	2.61
	민간 보조	6	4.63(.44)	
	민간	14	3.83(1.10)	
	전체	30	4.27(1.05)	
성인의 요구(4)	국공립	10	4.67(1.05) a	6.49**
	민간 보조	6	3.33(1.40) ab	
	민간	14	3.20(.84) b	
	전체	30	3.72(1.21)	
전체 문항(35)	국공립	10	4.13(.83) a	6.01**
	민간 보조	6	3.52(.69) ab	
	민간	14	3.10(.63) b	
	전체	30	3.53(.83)	

** p < .01

NAEYC의 인준기준은 미국 유아교육협회에서 발달적으로 적합한 영·유아기 보육환경을 권장하기 위해 제작한 지표이다. 평정 척도의 문항 중 개인용 침구의 사용 등 몇 문항은 미국에서 그런 것 만큼 매우 기초적인 조건으로 권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번안된 척도에서는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다양한 하위문화를 인정하기 위한 문화적 인식에 관련된 문항의 경우 근래 들어 아시아계 부모의 취업으로 우리 나라 어린이집에도 타문화에서 온 아동이 가끔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나, 미국의 현실만큼 보편적인 것은 아니어서 이 문항 역시 제외될 필요가 있었다. 평정 척도의 이외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우리 현실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평정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PECP) 영아편과의 병행 평가로 살펴 보았는데, 두 척도의 최종 평정 결과간에는 .87의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ECP는 국내에서 영아 보육 환경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 작업을 거친 유일한 척도였는데, 이 척도로 영아보육 환경을 평가한 결과와 본 평정 척도로 환경을 평가한 결과간에 높은 상관관이 있다는 것은 본 평정척도를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평정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Cronbach Alpha값은 전체 척도에서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7개 하위 영역별 분포에서는 듣고 말하기 영역과 프로그램의 구조 영역의 신뢰도계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하위영역들의 문항수가 적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이 하위영역의 문항을 추가하거나 혹은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정척도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로 알아 보았다. 7개 하위 영역에서 대부분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상호작용에 관한 하위영역의 상관은 .36으로 낮은 편이었다. 양육자와 아동간, 또래간의 상호작용은 보육환경의 질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Howes

등, 1992; Howes & Rubenstein, 1985). 본 척도에서 상호작용 하위 영역은 평정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요구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정자간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호작용의 이론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찰시 보조 관찰도구나 평가도구가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평정 조사의 연구대상이 된 보육시설의 문항별 평가점수는 7점 척도 중 1.6점에서 5.8점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35문항의 평균 점수는 3.58점으로 전반적인 질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난 낮잠, 학습활동을 위한 가구 설비 등의 조건은 조사대상 보육시설에서 전반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본적인 안전정책이 미비하고 영아반에는 가장놀이 도구를 많이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양육자들이 먹거리를 다루기 전이나, 기저귀를 갈고 난 후 항상 손을 씻는 위생관념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개수대가 손쉽게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몇몇 보육시설에서는 영아반의 경우 특별히 개수시설을 교실 안에 설비해 놓았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더욱 권장될 사항이라 판단된다. 양육자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손을 씻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양육자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육교사 훈련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여섯째, 조사대상 보육시설을 국공립, 민간보조 및 민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7개 하위영역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 성인의 요구 부분과 학습활동 부분에서 국공립 시설의 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질이 전체 보육환경의 질을 설명해주는 주요 요인이라는 최근 연구결과의 경향(Hofferth, 1992; Hofferth & Phillips, 1991; Hofferth & Wissoker, 1991)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영아반에도 학습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재, 교구를 제공하고,

훈련을 잘 받은 교사들이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학습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나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은 유아기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힘든 일이 많으므로 양육자들은 영아반을 맡으려 하지 않거나 영아 보육시설 양육자의 이직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며, 또한 영아 보육시설에서 양육자들이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보다 많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는 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수정한 것이다. 우리 보육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은 연구자들이 제외시키거나 가능한 적합하게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반대로 우리 보육 실정의 변양을 제대로 측정해 낼 수 있는 적절한 문항이 본 척도에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한 문항의 정련화가 계속 요구된다.

둘째, 본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영아전담 보육시설이거나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30개소 선정하여 환경 평가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평가대상이 된 보육시설은 거의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것이라, 본 연구의 결과를 그 외 다른 지역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 외에 놀이방 유형의 가정탁아 시설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시하지 못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본 평정척도를 가정탁아 시설 평가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평정척도의 내용은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검토되었는데, 이외에도 아동학 전공교수들, 보육시설 운영자 및 정책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척도 문항의 적합성 및 중요성에 대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청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평정 척도의 신뢰도를 내적 합치도 및 평정자간 신뢰도로 살펴 보았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재평정을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을 전제로 본 연구는 영아 및 걸

음마기 아동의 보육 환경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평가도구를 우리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 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 1) 강숙현(1988). 유아교육 프로그램 인준평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강숙현(1994).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의 이해와 활용. 서울: 동문사
- 3) 국립교육평가원(1994). 유치원 교육 평가연구.
- 4) 유희정(1997).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른 질적 수준 분석. '97년 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23-348.
- 5) 유안진(1996). 인간발달신강. 서울: 교문사.
- 6) 이영석(1989). 한국유아교육시설기관과 표준평가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29(2), 169-221.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 7) 이은해·이기숙(1996).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서울: 창지사.
- 8) 이은해·김온기·이미화·이재선(1995).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의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9) 정기원·오미영·안현애(1995).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5). 인간발달: 발달 심리적 접근. 서울: 교문사.
- 11) 조선영(1992).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 13) 한국교육개발원(1987). 유아교육기관 평가준거 개발연구.
- 14)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통계연보.
- 15) Abbott-Shim, M. & Sibley, A.(1987).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tlanta, GA: Quality Assist, Inc.
- 16) Belsky, J.(1990).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In N. Fox & G. G. Fein(Eds.). Infant

- day care: The current debate(pp.3-40). Ablex Publishing Corp. NJ: Norwood.
- 17) Belsky, J.(1992). Consequences of child care for children's development: A deconstructionist view. In A. Booth(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pp.83-9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J: Hillsdale.
 - 18) Belsky, J.(1997). Effects of nonmaternal care on child development, 인하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워크샵 자료집, 1-13.
 - 19) Booth, A. 외(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미간행 논문.
 - 20) Bornstein, M. H. & Lamb, M. E.(1992). Development in infancy. NY: McGraw-Hill, Inc.
 - 21) Clarke-Stewart, A.(1990).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reconsidered: Risks for parents, children, and researchers. In N. Fox & G. G. Fein(Eds.), Infant day care: The current debate(pp.61-86). Ablex Publishing Corp. NJ: Norwood.
 - 22) Clarke-Stewart, A.(1992a). Consequences of child care for children's development. In A. Booth(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 (pp.63-82).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J: Hillsdale.
 - 23) Clarke-Stewart, A.(1992b). Consequences of child care-One more time: A rejoinder. In A. Booth (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pp.116-126).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J: Hillsdale.
 - 24) Clarke-Stewart, A.(1994a). Day care in the U.S. A.: Some lessons. '94년 삼성 어린이개발센터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16.
 - 25) Clarke-Stewart, A.(1994b). Day care - Good or bad for children? '94년 삼성 어린이개발센터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31-146.
 - 26) Goelman, H. & Pence, A. R.(1987). Effects of child care,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The Victoria day care research project. In D. A.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pp.89-104).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27)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 449-460.
 - 28) Hofferth, S. L. & Wissoker, D. A.(1991). Price, quality, and income in child care choi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 70-111.
 - 29) Hofferth, S. L. & Phillips, D. A.(1991). Child care policy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47(2), 1-13.
 - 30) Harms, T., Cryer, D., & Clifford, R. M.(1990). Infant/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NY: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31) Hofferth, S. L.(1992).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child care in the 1990s. In A. Booth(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pp. 3-2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J: Hillsdale.
 - 32) Honig, A. S.(1995). Quality infant/toddler caregiving: Are there magic recipes? '95년 삼성어린이 개발센터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69-180.
 - 33) Howes, C. & Rubenstein, J. L.(1985). Determinants of toddlers' experience in day care: Age of entry and quality of setting. Child Care Quarterly, 14(2), 140-151.
 - 34) NAEYC(1991). Accreditation Criteria & Procedures. NY: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35)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ognitive outcomes associated with early child care: Results of the NICHD study.
 - 36) NCAC(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 (1993). 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 handbook. Sydney: Commonwealth of Australia.
- 37) Phillips, D. A., Howes, C., & Whitebook, M. (1992). The social policy context of child care: Effects on qual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1), 25-51.
- 38) Phillips, D. A. & Howes, C.(1987). Indicators of quality in child care: Review of research. In D. A.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pp.1-21).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39) Roggman, L. A. 외(1994). Infant day care, attachment, and the 'file drawer problem'. *Child Development*, 65, 1421-1435.